

日本 북 알프스 기행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吳 在 賢

10월 16일, 서울에서 나고야(名古屋)까지 아시아나항공으로 1시간 40분, JR나고야역에서 中央本線 특급열차로 2시간, 기소카와(木曾川)협곡의 단풍을 감상하면서 日本 북알프스의 현관도시 마쓰모토(松本)에 왔다.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이다. 역전 마쓰모토도큐인(松本東急イン)에 체크인하여, 14층의 호텔 창밖을 보니 일몰에 가까운 북 알프스의 연봉이 희미하게 보인다.



日本 알프스와 富士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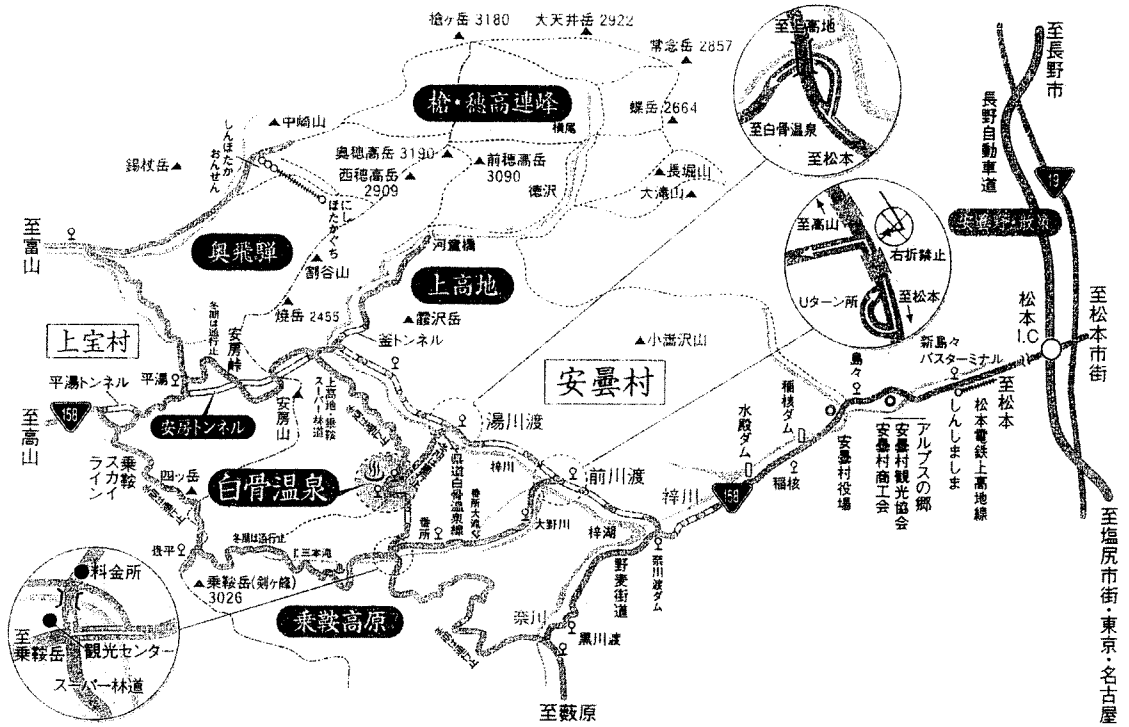
10월 17일, 오전 중에 松本城과 나카마치(中町)를 구경하고 2시, 松本역 광장에서 동창여러분과 합류하여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에 탔다. 일행은 22명이다. 부인이 9명, 동창이 13명이다. 부인 중 2명은 과부이다. 남편이 가고 없어도 매년 빠짐없이 참석한다.

작년, 같은 10월 17일, 우리는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東京에서 동창회를 갖고 대학에서 베푼 50주년 재상봉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그때 우리는 졸업 50주년을 계기로, 우리의 이 화려한 동창회도 마감할 듯이 아무 기약 없이 헤어졌다. 그런데 작년 연말 우찌노(内野)군으로부터 두툼한 한통의 항공우편이 왔다. 내년 동창회는 자기가 주관하여, 10월 17일부터 2박3일 북 알프스 시라호네(白骨)온천에서 개최한다는, 다음과 같은 편지와 白骨온천, 카미코지(上高地)의 안내책자가 들어 있었다.

전략

「내년도는 중부산악 국립공원, 日本 북 알프스에서, 그것도 나카사도카이산(中里介山)의 다이보사쓰도게(大菩薩峙)의 무대가 되기도 한, 그리고 3일 입욕하면 3년간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白骨온천에서 개최합니다. 이틀째는 표고 3,026m의 노리쿠라다케(乗鞍岳) 등반, 오후는 알피니스트 동경의 가미코지(上高地)제국 호텔에서 점심회식을 갖고 산책을 합니다.

부디 오셔서 북 알프스의 웅대한 산악과, 10월의 단풍을 즐기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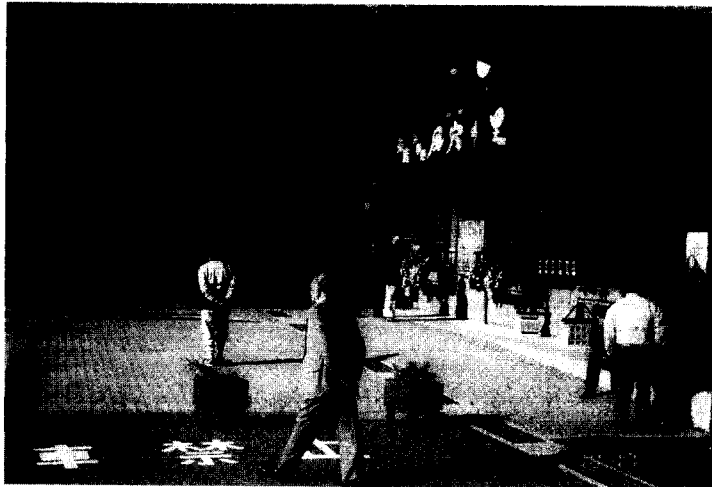


북 알프스 · 白骨온천 주변지도

나는 이 편지를 받고, 곧 바로 참가신청을 하였다. 日本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언젠가는 가려고 버리고 있던 곳이다. 강남 교보문고에 부탁하여 소설, 다이보사쓰도계(大菩薩峠)도 구입하였다. 한두 권으로 된 장편소설인 줄 알았는데, 20권, 세계에서 가장 긴, 그림에도 미완성 소설이라고 한다. 일금 23만원을 투자하여 방구석에 20권을 쌓아두고, 1권과 7, 8권(白骨온천 편)만 겨우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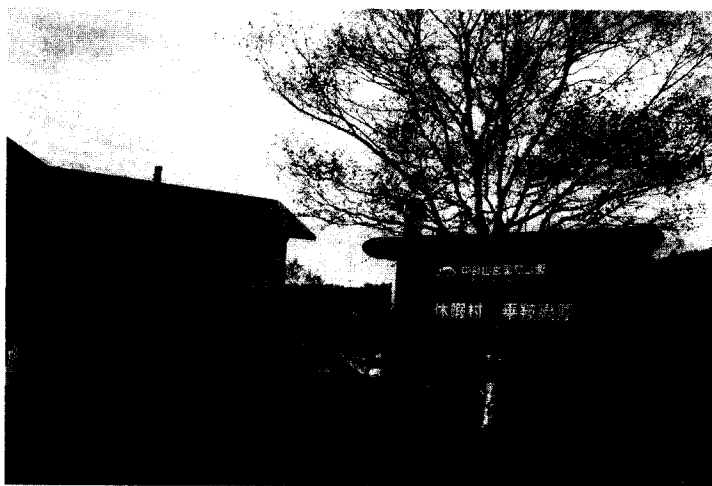
日本の 농촌과 북 알프스연봉 (島島에서)



風穴의 마을에서

우리 일행이 탄 버스는 해발 700m의 신시마시마(新島々)까지 비교적 평탄한 고원을 달리고 있다. 도로주변에 탐스럽게 익어있는 사과밭이 이어지고 북 알프스의 연봉이 다가오고 있다. 버스는 산악지대로 진입하고, 급류의 아스사(梓)강이 흐르고 있다. 군데군데 강을 막아 댐을 만들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네코키(稲核)댐을 지나 스이넨(水殿) 댐 바로 아래서 휴식을 취하였다. 후케쓰노사도(風穴の里)이다. 지하수부터의 냉풍이 풍혈(air vents)을 통과하는 산비탈에 오두막을 지어 천연냉장고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 여름에도 8°C를 넘는 일이 없고 옛날에는 냉장창고로, 긴요하게 쓰였다. 지금도 묘목, 종자 및 김치 등의 저장고로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음골 등의 지명이 있고, 얼음을 저장했던 서빙고 등도 이와 같은 것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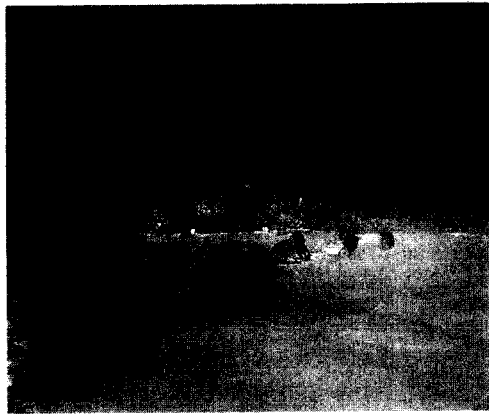
버스는 나카와도(奈川渡)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아스사(梓)강을 따라, 산으로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마에카와도(前川渡)에서 왼쪽으로 한참 올라가 노리쿠라관광센터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였다. 산 높이에 따라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단풍은 자작나무 등으로 바뀌고 있다. 바람도 구름도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스쳐가고 있다.



노리쿠라고원 휴가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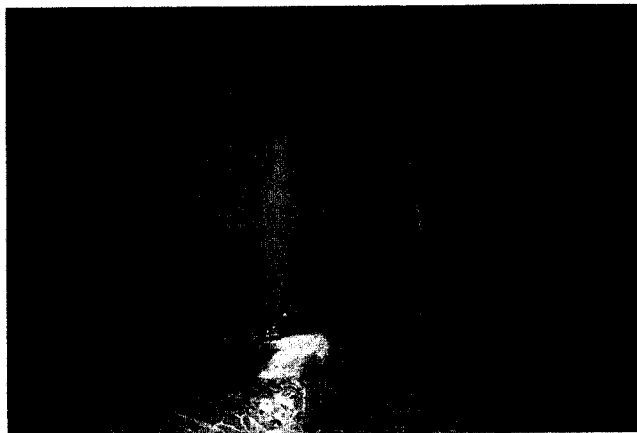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의외의 정보에 접했다. 노리쿠라다케로 가는 에코라인이 3일전의 강설로 인하여 통행금지라는 것이다.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하여 노리쿠라에코라인을 타고 다다미타이라(疊平) 버스터미널(2,700 m)까지 가서, 거기서 노리쿠라다테(乘鞍岳)의 최고봉 쓰루기가미네(剣ヶ峰, 3,026 m)까지 등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금 외기는 10°C이고, 밤새 기온한다고 20cm나 되는 적설이 녹을 것 같지도 않다. 노리쿠라다케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곳에 온 제일 목적이었는데.

버스는 카미코치·노리쿠라슈퍼림도(林道)의 유료도로를 따라 얼마 안가서 白骨온천에 도착하고, 오늘 내일 묵을 여관 “白骨에비스야”에 짐을 풀었다. 발견되어서 7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온천은 에도시대에 처음으로 탕옥(湯屋)이 생기고 주로 탕치장(湯治場)으로 이용되었다. 白은 유백색의 온천, 骨은 탕선(湯船)의 배를 지칭하여, 욕조 안이 석회분으로 희게 되므로 시로부네(白船)온천으로 불리고 있었다. 中里介山の 장편소설 “다이보사쓰도께”의 “白骨편”으로부터 유명하게 되어, 白骨온천의 이름이 그대로 일반 통칭이 되었다. 온천수는 마실 수도 있고, 온천수로 지은 「온천죽」은 이곳의 특산 요리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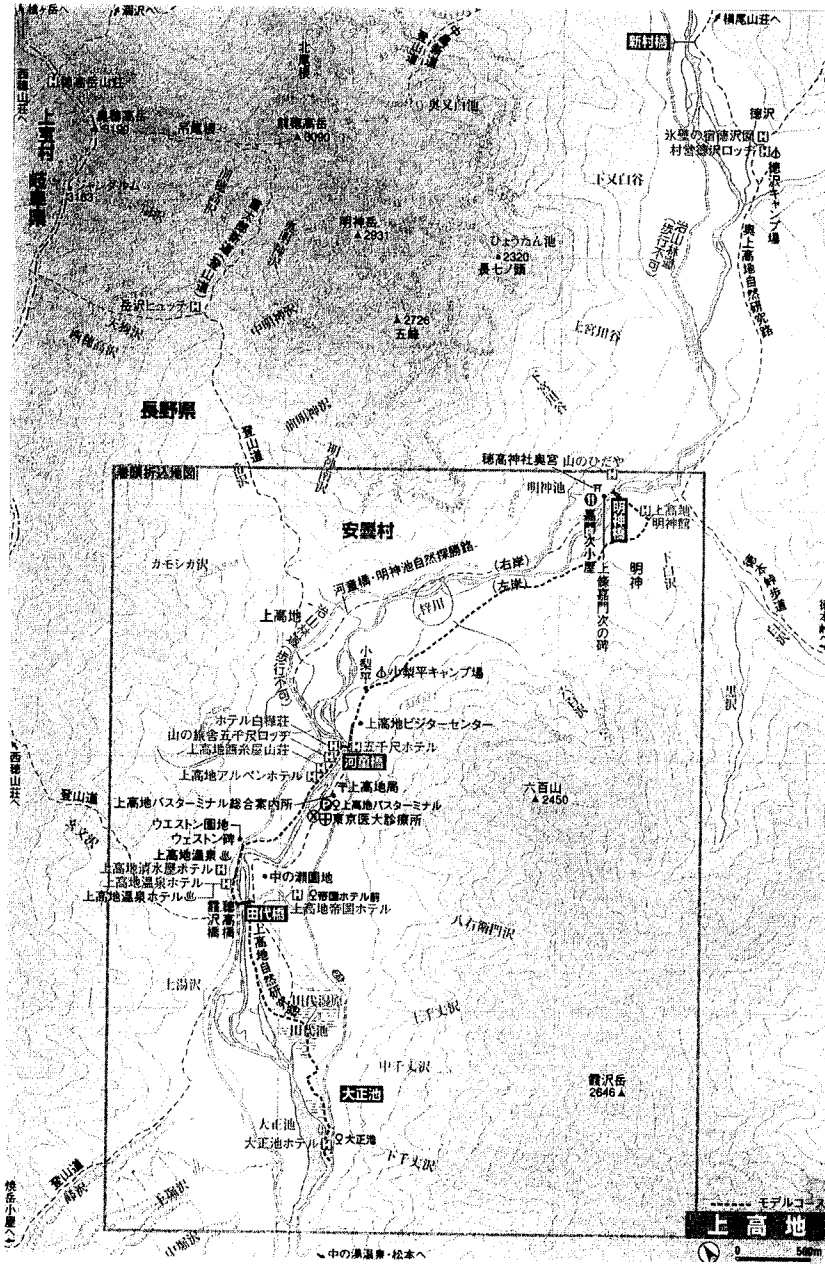
白骨온천의 노천탕 . 빛에 의하여 미묘하게 온천색이 변화하는 유백색의 온천

우리는 저녁 회식 전에 모두 온천 탕에 들어갔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시골의 소박함이 구석구석 스며있고, 온천수가 흘러 들어오는 탕구에는 석회분의 침전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탕은 유백색으로 日本에서 처음 보는 온천이다. 욕탕에서 알몸으로 야외로 나가, 노천탕에 들어갔다. 표고 1,400m의 대자연이 지척에 있고, 어두움이 짙은 시계(視界)에는 정적과 산허리의 선만이 아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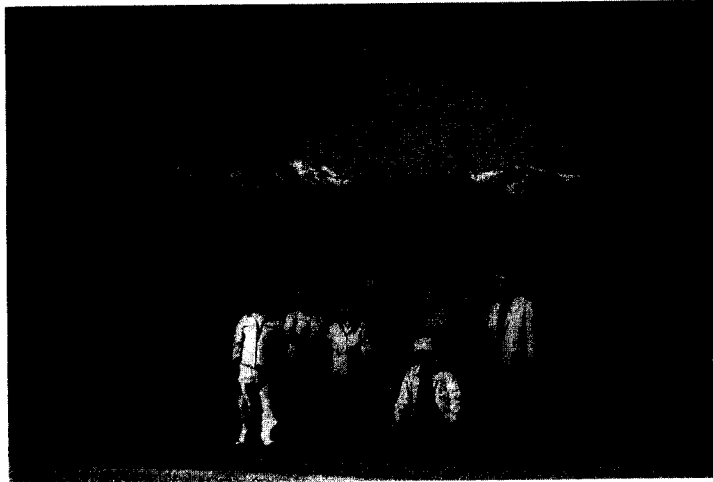
中里介山の 「다이보사쓰도께」 기념비

10월 18일, 7시, 아침도시락을 차에 싣고 버스에 탔다. 8시, 노리쿠라고원 국민휴가촌에 도착하니 노리쿠라다케로 가는 노리쿠라 에코라인 입구에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다. 통행금지이다. 밤새 마음속으로 그렇게도 빌었던만 허사가 되었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건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수 없이 우리들은 이곳에서 2km떨어진 산본다끼(三本瀧)로 발을 돌렸다. 日本 100, 명포목 중의 하나다. 폭포까지 왕복 10리의 등산을 하고 하산하는 길에 스스란교(橋)에서 차를 멈추었다. 노리쿠라다케 연봉이 웅대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왼쪽에 쓰루기가미네(劍ヶ峰, 3,026 m)가 눈에 띄어있고, 오른쪽에는 후지미다케(2,817 m)가 솟아 있다. 두 봉우리의 자



上高地 주변

락 지평에 다다미타이라(疊平)의 비스타미널이 있을 거다. 2,700 m의 日本에서 가장 높게 버스가 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쓰루기가미네로 등반을 했어야 했다. 노리쿠라다케의 최고봉에서 북 알프스의 봉우리들을 3,000 m급의 호다카(穂高) 연봉을 조망했어야 했다.



스스란교에서 눈에 덮인 노리쿠라다케(乘鞍岳)를 보다

나는 평소 日本의 신악지도를 펴놓고 3,000m급의 산악(山岳)을 세어보곤 했다. 후지산(富士山, 3,776m)을 제외하고는 이 북 알프스와 남 알프스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표고 3,000m이상의 봉우리기 북 알프스에 5개, 남 알프스에 7개 있다. 이 양 알프스에 표고 2,800m 이상의 봉우리는 무수히 많다. 日本의 중앙에 왜 이렇게 높은 산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지역이 日本의 중앙에 위치하여 日本의 지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日本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입체적이다.

대만도 면적은 좁으나 3,000 m급의 높은 산이 많다. 우리나라 남쪽 산들은 높이 2,000 m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가 비교적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체적과 평면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아직 그 장단점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다만 산이 높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온대지방에서의 고산(高山)에서는 식물의 서식이 어렵다. 후지산의 산 정부는 1년 내내 눈에 덮여 있다. 그러니 식물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日本의 3,000 m급의 높은 봉우리들은 임반과 돌과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필름에서 보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들은 다르다. 지리산 천왕봉도, 한라산 백록담도 나무로 쌓여, 나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웅대하다고 하기보다는 수려하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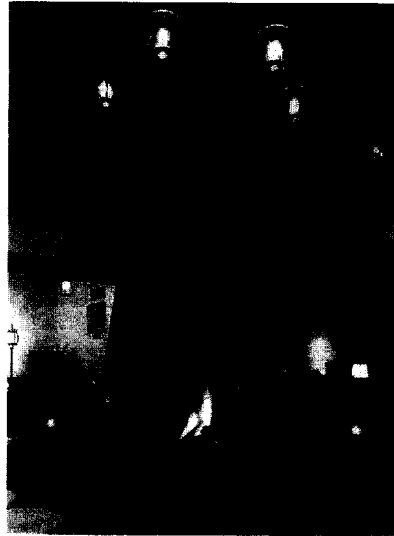
이 스스란 다리 아래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을 실컷 보고, 노리쿠라다케가 실증나도록 실컷 감상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쉬움을 가슴에 안고 안타까움에 젖어 제2의 목적지 카미코치(上高地)로 버스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제 올라왔던 길을 마에가와도(前川渡)까지 내려와 여기서 카미코치(上高地)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上高地까지는 15km 떨어진 사와도(澤渡)부터는 버스와 택시만이 통과할 수 있고, 자가용차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곳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진초기지였다. 등산장비를 이곳까지 부쳐놓고, 여기서 산행준비를 완료하여 길어서 카미코치로 갔었다. 그만큼 길이 험하다. 터널을 지나면 또 터널이다. 산에서 돌아나 흙이 흘러내리면, 쉽게 길을 메우고 강을 메워 뱀이 될 것 같다. 협곡의 건너편 산비탈은 나무가 없고 토사만이라 곧 흘러내릴 것 같고, 조금씩 흐르고 있는 비탈도 있었다.

카미코치 입구 가까운 왼편에 표고 2,455 m의 야키다케(焼岳)가 보인다. 바위로 된 나체의 봉우리이다. 야키(焼)



上高地제국호텔과 호타가 (穂高) 연봉



호텔로비의 맨틀피스

는 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일행인 오찌(越智)부인이 이 야카다케에 등반하였을 때 봉우리의 돌이 뜨거워서 만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카미코치가 시작되는 타이쇼이케(大正池)는 1915년(大正4년) 燒岳분화로 아스사 강을 막아 생긴 저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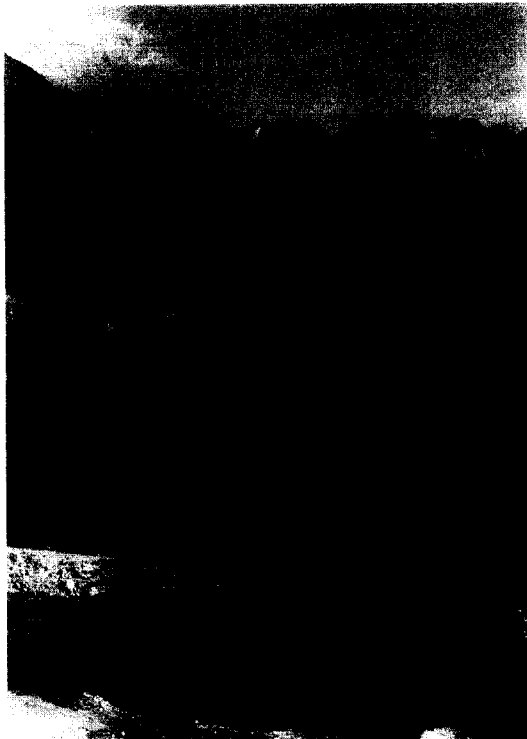
上高地는 북 알프스를 포용하는 중부산악국립공원의 중앙에, 표고 1,500m의 고지에 위치하는 분지이다. 아스사(梓)강의 청류와 웅장한 호타카(穂高)연봉이 조망되어 산악인을 매혹한다. 영국인 선교사이고 등산가이기도 한 웨스턴씨에 의해서 세계에 소개된 후로, 日本의 대표적인 산악명승지로 알려졌다.

11시가 좀 너머서, 버스는 上高地제국호텔 현관 앞에 멈추었다. 이 호텔은 1933년에 개업한, 북 알프스의 산들을 배경으로 스위스풍의 빨간 지붕과 로비의 맨틀피스가 인상적인 산악리조트호텔이다. 자연과 조화된 중후한 취향이 담백 담긴 인테리어로 내부가 장식되고 있다. 4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만 개업한다. 긴 겨울철에는 많은 눈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어 손님이 없다.

산악인들은 이곳에서 자고 식사를 하는 것이 멋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수기에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더·다이닝 룸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전망이 좋고 우아한 방이다. 샐러드는 나의 둔해진 혀를 놀라게 할 만큼 신선하였다. 두툼한 스테이크는 연하였고, 약간의 저항은 처음 씹어보는 미각이었다. 눈이 남아있는 연봉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 묻혀 적포도주를 음미하는 이 시간이 무한히 행복하였다.

2시부터 4시까지 산책시간을 가졌다. 타시로바시(田代橋)를 건너서, 아스사강을 따라 캇바바시(河童橋)로 서서히 걸었다. 아스사강의 청류는 힘차게 흐르고, 투명하기 그지없다. 강 양쪽은 높은 봉우리들이 압도하고 있다. 신비적인 자연이란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웨스턴 릴리프 앞에서 멈추었다. 암반에 밝아진 홍상과 비문이었다. 전술한 월터·웨스턴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日本산악회가 세운 릴리프이다.

웨스턴은 1891년(明治24년) 上高地를 방문 묘진이케(明神池)근처에 살고 있던 카미조가몬지(上條嘉門次)등의 안내로 야리가다케(槍ヶ岳, 3,180m), 오후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의 등정에 성공했다. 이 일이 스포츠로서의 등산의 효시가 되어, 그를 근대 등산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아스사(梓)강에서 六百山(2,450m)을 바라보다

그가 귀국 후 런던에서 「日本 알프스의 등산과 탐험」을 출판하였다. 이 출판에 의해서 日本 알프스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고, 日本 근대 등산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槍ヶ岳에 등정한 외국인은 오사카 조폐창의 초빙으로 日本에 온 영국인 기사 윌리엄 가우랜드씨였다. 그는 1877년(명치10년)에 槍ヶ岳에 등정하였다. 그 후 日本 국내를 여행하여, 「日本여행기」를 출판하였다. 그 책 속에, 槍ヶ岳를 포함한 히다산맥을 日本알프스로 이름 붙여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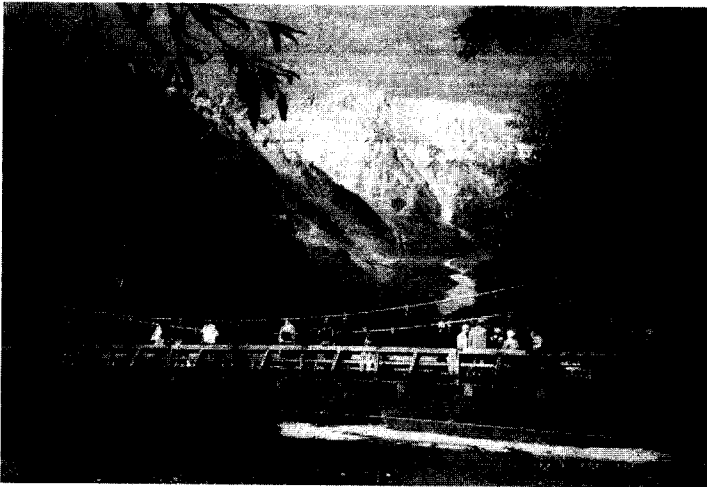
나의 「다테야마 구로베 알루펜루트」 기행문에서 - 북 알프스 개척의 선구자, 모모세신따로의 생애 - 를 소개한 일이 있다. 윌터·웨스턴씨가 신따로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여관, 오마찌(大町), 다이산관(對山館)에서 숙박한 후 북 알프스 다테야마(立山, 3003m)를 향해서 떠났다. 1893년 신따로가 태어난 다음해였다. 북 알프스가 외국사람에 의하여 산의 문화가 도입될 무렵 신따로는 이 산자락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매일 북 알프스의 연봉을 바라보고, 산과 더불어 자랐다. 그는 후에 등산로를 개척하고, 등산 안내인의 조

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북 알프스를 등산하게끔 제대로 된 산장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웨스턴씨의 등산가이드가 되어 일약 유명하게 된 上條嘉門次(1847~1917)와 그의 제자들은 호다카(穂高)연봉의 등산로 개척에 공헌하였다. 그를 기리는 비가 묘진이케(明神池)호반의 가몬지고야(嘉門次小屋) 앞에 서있다. 日本의 근대 등산의 예명기, 북 알프스를 개척한 산악인들의 발자취를 잠시 더듬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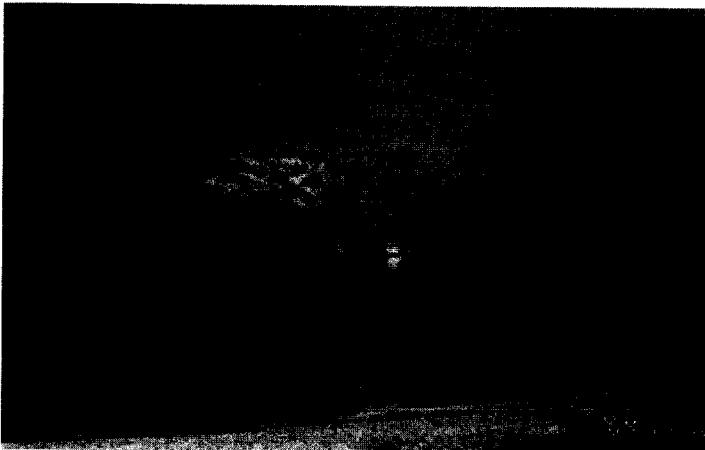


日本산악회가 윌터·웨스턴의 77세를 축하해서 만든 릴리프 (1937년)



河童橋에서 바라보는 호다카 (穂高)

강변을 따라 평탄한 산책길을 30분쯤 걸어 카타바시(河童橋)로 왔다. 청류 아스사강에 걸려있는, 上高地의 심볼적 존재인 현수교이다. 구름한점 없는 가을 날씨,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 m), 마에호다카다케(前穂高岳, 3,090 m)등의 호다카 연봉의 웅장한 경관이 이 다리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맑은 날씨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노리쿠라다케에 등반을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上高地의 산책에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



穂高岳 연봉들

1,500 m 높이의 고지에 이렇게 맑은 강이 유유히 흐르고, 몇 시간이나 산책할 수 있는 평지와 숲이 있고, 그리고 이곳을 1,500 m 높이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上高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日本 알프스의 조산운동과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고지이다. 태고적 깊은 V자 계곡이었으나 焼岳 등의 분출물에 의해서 가로 막히고, 주위의 산들부터 토사가 유입 매립되어 현재와 같은 길고 좁은 평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河童橋 주변의 휴식처에서 한참을 쉬었다. 일부 건객 친구들은 묘진이케(明神池)까지 갔다 온다고 떠났다. 편도 약 1시간의 자연탐승로이다. 이 묘진이케에서 1시간을 더 걸어가면 도쿠자와(徳澤) 산장에 이른다. 이곳이 호다가 연봉으로 등반하는 등산기지이다. 산악회 회원들이, 대학산악부원들이, 호타고 연봉 암반의 공격에 앞서 반드시 거쳐 가야하는 산장이다. 길 안내도하고 조난 시 구조본부가 되기도 한다. 이 산장에 얽힌 일화도, 비화도 日本 산악역사만큼 많은 것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아스사강이 흐르는 왼쪽 방향의 숲 속 산책로를 서서히 걸어서 재국호텔로 돌아왔다. 군데군데 발을 멈추어 강물에 손을 담가 여름같이 찬 온도에 놀라기도 하고, 북 알프스 연봉을 감상하느라 멍하니 강가에 몇 번이고 서 있기도 하였다. 묘진다케(明神岳, 2,931 m) 왼쪽 뒤편에 마에호다카다케(前穂高岳)가 솟아있고, 이 봉우리 왼편에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가 있어, 북 알프스의 웅자(雄姿)가 한 시야 속에 들어온다. 이 두 봉우리를 이어주는 쓰리오네(弔尾根)의 능선이 있고, 이 능선에 오르기 위한 上高地부터의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다. 구름한점 없는 가을 날씨라 1,500 m의 고지에서 3,000 m의 봉우리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인다.



上高地 자작나무 숲길의 산책로



카미코치 (上高地) 를 떠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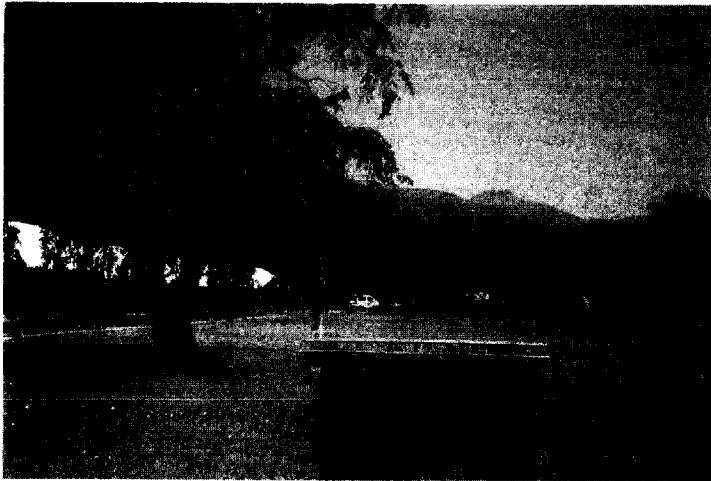
시라호네(白骨) 온천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다 같이 온천을 즐기고, 정적 속에 우정을 나누면서 또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조식 후 마쓰모토(松本)로 돌아와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 松本역에서 해산을 하였다. 동창들과 헤어지고, 북 알프스와의 헤어졌다.

11시 43분, 나는 나고야행 특급열차에 올랐다. 16시 40분 발 서울행 비행기를 타야한다. 松本역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떨어지더니 차창에 빗방울이 강하게 부딪힌다. 그렇게도 청명하던 어제, 그저께의 날씨가 이제 호우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행운이었던가. 비에 젖은 기소카와(木曾川)를 따라 기차는 계곡을 끼안고 돌고 있다. 호텔에서 싸준 주먹밥을 먹으면서, 松本부터, 노리쿠라다케, 카미코치, 행적의 순서대로 되새겨 보았다.

松本市에서는 松本の 심볼인, 명성, 마쓰모토성(松本城)의 관광과 나카마치도우리(中町通り)의 산책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松本城은 1593년 경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전투에 유리한 산성(山城)이 많은 전국시대에 평지에 축성한 것이 이색적이다. 그리고 성 전체가 까맣게 도색되어 있어서 일명 까마귀성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백노(白鷺)의 성이라고 불리기도 한 히메이지성(姫路城)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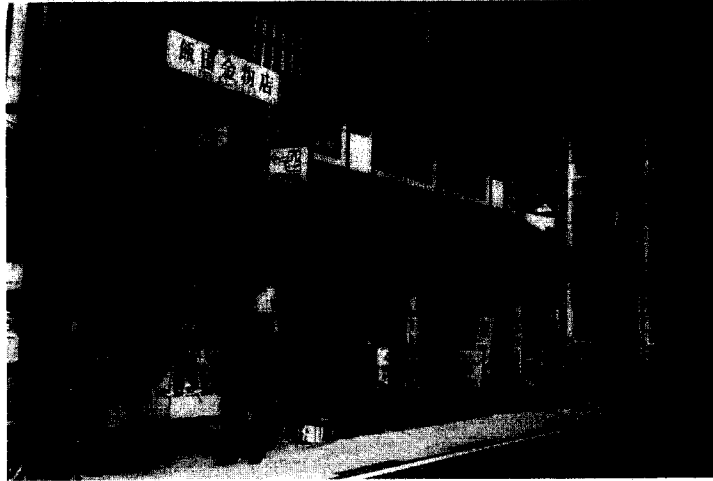
수려한 松本城과 해자



400년전 성주가 가토키요마사에게 선물 한 말을 매었다는 松本城 마당 앞의 벚꽃나무

성 앞마당에 매우 오래된 벚꽃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가토키요마사(加藤清正)가 에도(江戸)에서 그의 임지 구마모토(熊本)로 돌아가는 길에 이 松本城에 들렀다. 성주 이시카와 카스마사(石川數正)는 원래의 객을 따듯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두 마리의 준마(駿馬)를 갖고나와 그중 마음에 드는 한 마리를 갖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키요마사는 어떻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가릴 수 있겠느냐면서 두 마리 다 갖는 것을 위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과연 키요마사 공 이рода고, 마당의 벚꽃나무는 그때 준마를 매어두었던 나무라고 한다. 400년의 성상이 홀렸다.

松本城 니노마루(二の丸)의 정문인 타이고몬(太鼓門)으로 나와 메토바(女鳥羽) 강을 따라 개성이 넘치는 상점가 나카마치도우리(中町通り)로 왔다. 술집과 옷가게 등이 밀집한 왕년의 상인의 거리이다. 에도 말기와 명치 초에 큰 불이 나서 주요한 시설과 인기를 많이 잃었다. 재산의 화재부터 지키기 위하여 상인들의 지혜로 대화벽의 토장(창고)이 만들어졌다. 백과 흑의 간결한 디자인의 토장집이 이 나카마치 부근에 많이 남아, 빈예·공예의 집포가 되어 옛 마쓰모도의 독특한 거리를 만들고 있다.



中町通りの 백과 흑의 토장집(창고)으로 되어 있는 점포들



小川裕子 여사와 같이 토장전시관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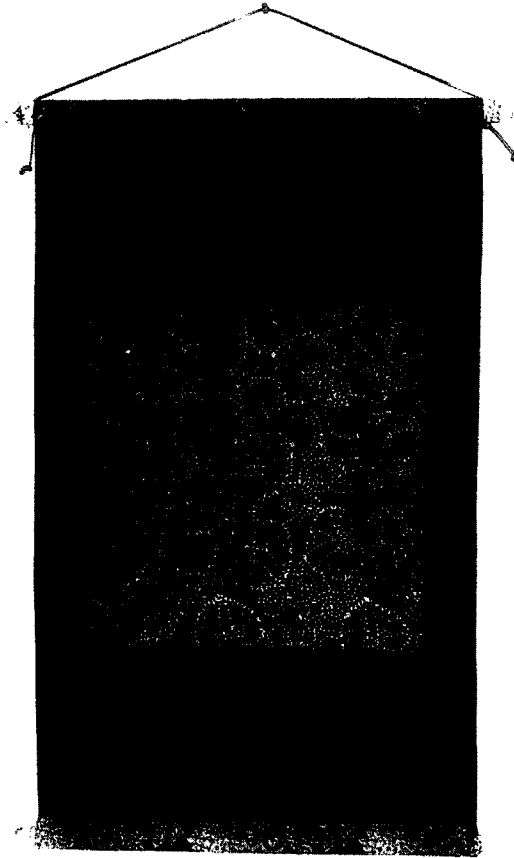
나는 어느 킴킴한 토장 속의 전시장에 무심코 들어갔다. 오가와히로코(小川裕子)의 사시코(刺子)와 화포(和布)의 작품전이였다. 알고 보니 오가와 여사는 대학 6년 후배로 불문과 졸업생이었다. 그녀는 번역업을 하면서 日本의 전통공예인 사시코를 연구개발,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日本 킬트가 SASHIKO로서 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번역이란 고독한 작업을 하면서, 바늘을 움직이는데 몰두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녀와 사 진 한 장을 남기고 아쉽게 헤어졌다.

북 알프스에서 서울로 돌아와 2주일이 지났다. 우연히 40여 년 전에 읽은 소설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저 「빙벽(氷壁)」 생각이 나고, 그의 무대가 上高地였지 않나 하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햇일삼아 점원에게 그 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컴퓨터로 검색하더니 어느 서가 구석에서 내가 원하던 그 책을 들고 왔다. 2002년 11월 30일, 85인쇄판으로 633페이지의 두툼한 문고본이었다. 그날부터 3일간

小川裕子 刺し子と和布の作品展



葵唐草のタペストリー

나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책만 읽었다. 지도를 펴 놓고 소설 중의 오오쓰와 코자카가 등산한 경로를 추적하였다.

오오쓰(魚津)와 코자카(小坂) 두 등산가가 새벽 松本역에서 사완도(澤渡)를 거쳐, 걸어서 카미코치(上高地), 그 곳 제국호텔 초서에서 1박, 이튿날 도쿠자와(徳澤) 산장에 도착, 前穂高岳의 동벽(東壁) 공격의 기지로 정하였다.

前穂高의 동벽 A 페이스 암벽 난소에 도전한 코자카는 끊어질 일이 있을 수 없는 자일이 끊어져 추락사 한다. 코자카와 동행하여 조난의 진위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오오쓰는, 자살설을 포함하여 수많은 억측과 싸우면서, 코자카의 연인이었던 미모의 유부녀 미나코(美那子)에의 사모를 가슴에 안고, 죽음의 단독산행을 개시한다.

고명한 등산가가 피할 수 있는 조난을 당하여 생명을 잃은 일이 부지기수이다.

나 자신이 그 전철을 밟은 꼴이 되었다.

D계곡에서 대 낙석을 만나 대퇴부(大腿部)의 출혈 다량

의식, 간헐적으로 몽롱해진다.

안개 완전히 걸치고 달빛이 차다. 2시 15분이다.

고통 전혀 없고 한기 느끼지 못함.

조용하다. 한없이 조용하다.

이러한 수기가 그의 시체 옆, 비에 반쯤 젖은 등산 노트에 적혀져 있었다. 웅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그리고 잡다하게 얽힌 도회지의 갈등을 조명하면서, 연애와 사나이 간의 우정을 드라마틱하게 전개시킨 장편소설이다.

토쿠자와(德澤)에는 두 채의 산장이 있다. 그 중 한 채가 소설에 등장하는 산장 「德澤園」으로 “氷壁의 숙소”란 간판을 걸고 있다.

나는 이 소설에 푹 빠져 들었다. 上高地에 다녀온 덕택으로 소설 중에 전개되는 풍경이, 호다카 연봉의 묘사가 현실감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러나 40년 전 젊은 내 가슴에 강하게 각인된 한 장면과 문장은 끝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85회나 재판되는 동안 빼고 보태진 것이 분명하다.

그서계 동창회 간사인 우지노(内野)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사진이 왔다. 수년 내로 노리쿠라다케(乘鞍岳)를 새도전하자고.

그래서 나의 북 알프스기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4년 11월 30일記)

학회지 광고게재 안내

격월 년간 6회로 발간되는 한국자원리사이클링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의 학회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회원사 및 관련기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게재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광고게재에 관해서는 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라인쇄 (1회)	흑백인쇄 (1회)	1년 6회 게재 기준			
			칼라 인쇄		흑백 인쇄	
			일 반	특별회원사	일 반	특별회원사
앞표지 안 쪽	50 만원	30 만원	170 만원	120 만원	130 만원	100 만원
뒷표지 안 쪽	50 만원	30 만원	170 만원	120 만원	130 만원	100 만원
뒷표지 바깥쪽	60 만원	4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20 만원
학회지 안(내지)	3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80 만원	80 만원	50 만원

※ Film을 주시지않는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